

지정 토론 코멘트

교토대 · 시오데 히로유키 (塩出浩之)

박한민 선생님 논문에 대한 코멘트

감염병 대책에 있어서 개항지의 외국 영사가 주도권을 잡았고 또 행정권이나 주권이 문제가 되는 상황이었다는 지적은 이치카와 선생님 논문에서 제시된 일본의 경험과도 공통되는 부분이어서 흥미로웠다.

청국 이사관(理事官)이 조선의 해관세무사와 공동으로 감염병 대책을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둘은 어떤 관계에 있었는가.

또한 이치카와 선생님 논문에서는 근대 의학이 중요한 논점이 되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조선에서는 어땠는가.

이치카와 선생님 논문에 대한 코멘트

역시 감염병 대책의 주도권이 중요한 문제가 되었는데, 의료의 수준, 즉 근대 과학이라는 요인이 명확해진 것은 굉장히 의의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일본 개항지에는 중국인이 상당히 많았을텐데, 그들은 감염병 대책에 있어서 어떠한 처우를 받았는가.

일본이 근대 의학을 수용함과 동시에 국내의 감염병 대책에서도 주도권을 잡았던 경험은 일본의 식민지 통치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가.

위 신중 선생님 논문에 대한 코멘트

위생과 방역이라는 주제에 대한 외래적 요소와 전통적 요소라는 논점을 제시하신 점은 흥미로웠다.

위생이나 방역은 박래품(舶來品)이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애당초 콜레라나 페스트와 같은 역병이야말로 박래품이라고 해야하지 않을까? 물론, 콜레라나 페스트가 서양에서 들어온 것은 아니다. 하지만 서양 국가들에 의해 동아시아가 세계 시장으로 통합되었고 그로 인해 이전에는 없었던 사람들의 이동이 발생한 것이 팬데믹의 요인이다. 역병을 쫓아서 위생이나 방역이 그 뒤에 들어온 것은 아닐까?

그리고 박한민 선생님 논문과 이치카와 선생님 논문에서 논해진 위생·방역과 행정권·주권의 관계는 중국에서는 언제, 어떤 식으로 의식되기 시작했는가.